

미디어 술래

Media Sullae : When Technique Follows

전시 서문

미디어 술래

Media Sullae : When Technique Follows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디어 술래’는 이러한 기술적 환경 속에서 장애예술인의 고유한 감각 체계와 디지털 신기술이 서로를 '술래'처럼 뒤쫓으며 만나는 지점을 탐색합니다.

전시명인 '술래, 한자 재주 술, 올 래'는 기술이 단순히 창작의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감각을 부르고 이끌며, 함께 나아가는 능동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신체와 감각의 차이를 넘어서야 할 한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를 고유한 인지적 구조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을 빛과 소리, 진동의 언어로 번역해 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과 빛을 식물 로봇의 움직임으로 풀어낸 김유석, 예기치 못한 신체적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감각을 형상의 붕괴로 재구성한 곽요한, 빛과 신체가 교차하는 찰나에 서로의 존재를 소리로 인식하게 하는 박유석의 작업은 기술이 어떻게 감각의 외연을 확장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박은영과 이요는 생명처럼 깨어나는 구체의 움직임과 시차를 두고 도달하는 진동의 기척을 통해 실존의 감각을 건드리며, 청각장애 무용수의 움직임이 곧 음악이 되는 박성민·강혜라·에이블뮤직그룹의 퍼포먼스는 감각의 역전이 새로운 창작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기술이 감각을 따라가고, 다시 감각이 기술을 이끄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공유합니다. 인터랙티브 설치, AI, 키네틱 로봇 등 다양한 융복합 매체로 구현된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장애예술이 나아갈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과 예술이 교차하는 이 술래잡기 속에서 장애예술의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함께 상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곽요한

창조의 순간

곽요한은 뇌경색 발병 이후 마주한 신체적 제약과 상실된 삶의 목표들을 작품의 동력으로 삼는다. 기존 회화 작업 ‘Wave and Crush’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형상의 붕괴와 재배열을 반복하며, 과거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질서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담아낸다. ‘창조의 순간 1, 2’는 이 회화 작품들을 원천으로 제작한 2채널 AI 단편 영상으로, 우주 다큐멘터리와 연극 무대 타임랩스의 형식을 빌어 ‘Wave and Crush’가 탄생하는 장면을 재구성한다. 특히 ‘창조의 순간 2’에서는 무대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이 모두 곽요한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손상되지 않은 신체로 창작하는 상상을 영상 속에 펼쳐낸다.

기술 구현 및 제작

이대행

김유석
식물로봇

김유석은 깊은 숲속에서 바람에 의해 무수한 가지와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만들어내는 풍경을 상상하며 본 작품을 기획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던 바람이 숲이라는 실체를 만나 흐름과 소리를 갖게 되는 자연 현상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청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은 40개의 식물 로봇 모듈과 인공 태양으로 구성되며, 각 모듈에 내장된 센서가 주위 환경을 인식하여 움직임의 폭과 속도를 결정한다. 조도가 높아질수록 식물이 태양을 향해 기우는 행위를 묘사하듯 더욱 크고 빠르게 반응하며, 빛과 움직임이 맞닿는 지점에서 살아 있는 숲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박성민

Antigravity

박성민은 음악의 리듬과 선율이라는 '예술적 중력'에 순응하여 춤추는 일반적인 인과의 법칙을 뒤집는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청각장애 무용수의 자율적인 움직임이 곧 음악을 생성하는 중력장이 되며, 무용수의 몸짓은 찰나에 사라지는 궤적이 아니라 공간에 전자 음향을 떠오르게 하는 반-중력적 에너지로 작동한다. 들리지 않는 고요를 걸핍이 아닌 자유로 재정의하는 이 작업은, 감각의 역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차원의 예술적 무중력 상태를 선사한다.

퍼포먼스 팀

안무 강혜라

연주 공민배, 김윤세, 이현성, 장미솔

박유석

Cylinder Movement

박유석의 ‘Cylinder Movement’는 빛과 소리를 통해 자연의 주기와 인간의 연결을 감각하는 설치 작업이다. 타원형 공간을 천천히 순환하는 한 줄기의 빛은 시간의 궤적을 은유한다. 관객의 신체가 이 빛과 교차하는 순간 공간은 소리로 채워지며, 개별적인 관객들은 우연한 화음 속에서 자신과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관객의 개입을 매질 삼아 완성되는 이 공간은, 우리가 멈추지 않는 순환의 일부임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기술 구현 및 제작

협력기획 : 아인투아인

시스템 디자인 : 신재영

키네틱 엔지니어링 : 렉한

하우징 디자인 및 제작 : 정지후

사운드 디자인 : 이정훈

박은영

Untitled

박은영은 40개의 투명 구체가 관람자의 움직임과 거리 변화에 반응해 빛, 움직임, 그림자를 변화시키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투명 구체와 그 내부의 물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생명의 잠재적 상태를 암시하며, 관람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구체들은 생명체처럼 깨어나 반응한다. 공간 전체의 빛과 그림자가 실시간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은 관람자와 사물 사이의 생동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기술 구현 및 제작

RGB Lab

이요

이후에 기척이 있다

이요의 ‘이후에 기척이 있다’는 철판 프레임과 캔버스, 서브 모터와 스피커로 구성된 구조물이다. 모터의 진동은 캔버스의 움직임으로 직접 전달되어 기계적 소음과 마찰음을 발생시키며, 이때 생성되는 소리는 하나의 고정된 음원이 아닌 여러 지점에서 파편화되어 공간 곳곳에 흩어진다. 관람자는 구조물에 남겨진 미세한 흔들림을 촉각적으로 인지하며, 시차를 두고 뒤늦게 도달하는 반응의 기척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

<점심 반차 : 감각 술래단>

전시의 감각 요소를 차와 사운드 영상으로 연결하여 바쁜 일상 속 직장인에게 쉼과 감각 회복을 제공하는 런치 웰니스 프로그램

<어린이 워크숍 : 소리 모양 우리>

소리의 진동이 만드는 무늬를 관찰하고 입체 작품으로 형상화하며 서로 다른 몸과 감각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초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 술래들의 대화>

작가와 기획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전시 이면의 창작 과정을 공유하고, 장애예술의 고유한 감각 세계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모두미술공간 누리집 또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기간

2026년 7월 16일 목요일부터 2026년 8월 21일 금요일까지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월-토요일)

오후 5시 30분 입장 마감

휴관일

매주 일요일, 8월 17일 월요일

관람료

무료

주최 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모두미술공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모두미술공간

04637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별관 5층

02-760-9797

www.moduartspace.or.kr

인스타 @modu_artspace

유튜브 @moduartspace

카카오채널 '모두미술공간'검색